

S#1. 20??년. 그 길 위.

시골 같아 보이는 한적한 도로 위에서 (->그 길) 여자가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눈을 뜬다. 자신의 앞에는 여행객처럼 보이는 남자가 걸어가고 있다. 여자는 자신이 무슨 이유로 이곳에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을 살펴본다. 그러다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사진(2014.09.00 날짜가 적힘)을 살펴보던 여자는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를 발견한다.

“2015년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

여자는 이내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이 났다는 듯 자신 있게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여자가 앞에서 걷던 남자를 추월하려던 찰나, 남자가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 잠깐 여자와 남자의 눈이 마주친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눈을 무시하고 스치듯 남자를 지나친다. 그러나 남자의 시선은 여자가 자신을 지나쳐서 앞으로 걸어갈 때까지 여자를 따라간다.

남자 : 저기요!

여자가 우뚝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본다.

남자 : (웃으면서) 괜찮으시면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래요?

여자 : (그냥 어떨떨하게) 아... 네...

여자가 남자의 사진을 찍어준다.

여자 : (카메라를 돌려주면서) 여기요.

남자 : (사진을 보고 감탄하면서) 잘 찍으신다~ 사진 배운 적 있으세요?

여자 : (어리둥절 하다는 듯이) 아니요..? (무관심) 그럼 이만...

남자 : (여자를 막으면서) 앗 잠깐...

여자가 뒤돌다가 배낭에 뭔가 부딪히면서 남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가 떨어진다.

과직.

남자랑 여자랑 둘 다 순간 정지.

여자 : (이내 정신을 차려서 놀라면서) 어떡해! 아 죄송해요 정말ㅠ 제가 잘 못 보고...

남자 : (허탈하게 웃으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자 : 아니.. 그래도...ㅠ

남자 : (혼자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재밌게 웃는다) 아하하하 혹시 반창고 있어요? 아님 뭐 붕대라도...ㅎㅎ

여자 : (어리둥절)그건 왜요?

남자 : (능청스럽게)카메라가 다쳤으니까 치료라도 해볼라 그랬죠~

여자 : (미친사람 보듯이)에에...?

남자 : (한참 웃다가 장난끼 가득한 얼굴로 상처받은 척) 와... 눈빛봐...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ㅠ 진짜 상처받겠네ㅠ (주저 앉아서 카메라를 주섬주섬 챙겨서 가방에 넣으면서 말한다) 정말 미안하면 나랑 여행 같이 다닐래요?

여자 : (경계) 혹시 지금 헌팅 뭐 그런거 하시는 거예요..?

남자 : 헐팅(hurting)이죠. 제가 마음을 다쳐서... 아 맞다! 이 카메라도 다쳤죠~ 아~ 이거 되게 비싼 친구인데.... 이를 어떡하나.....

여자 : ?

남자 : (귀 대보라는 듯 손짓)

여자 : (남자의 귓속말을 듣고) 예에?!?!?!?

남자 : 가시죠^^

여자 : (앞서가는 남자를 할 말이 없다는 듯 따라가며) 아.....